

안산병원 의료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의료지원

본교 안산병원(원장=김운영 교수)이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피난 중인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의료봉사에 나섰다. 30여명의 본교 안산병원 봉사단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에 마련된 검사실에서 동포들을 맞이했다. 의료원 사회공헌사업팀에서 지원한 CT와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이동진료버스를 대동해 다양한 검사들이 이뤄졌다. 이번 진료에서 총 42명의 고려인이 검사를 받았으며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안산병원에서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본교 의료원은 오는 10월 1일 ‘인천 함박마을’의 고려인들을 위해 봉사단이 의료지원에 나선다.

김동우 기자 good@

법전원, 국내 최초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개설

고려대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공동대표=김상중·이성엽 교수)는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Advanced Program for Data·AI Law)’을 오는 2학기에 국내 최초로 개설한다. 이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정승환 교수)에서 현대의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한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 분야 종사자 재교육을 진행한 것의 일환이다.

이번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은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법 제도의 변화에 대해 강의 및 토론하는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심 있는 공무원, 사기업의 임직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개의 강좌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good@

디자인조형학부,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중 2곳서 수상

유승현(디자인조형학부) 교수 연구실과 디자인조형학부 학생들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인 2022 IDEA 디자인 어워드와 2022 레드닷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에서 3개의 본상을 받았다.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가 수여하는 IDEA와 에센(Essen) 소재 독일 디자인 협회가 수상하는 레드닷은 iF 어워드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세계적 권위의 공모전이다.

학생 팀 ‘FLUX’는 오피스 근무자들의 올바른 앉은 자세를 위한 하드웨어와 모바일 소프트웨어 연동형 융합 디자인으로 IDEA 어워드를 수상했다. 다른 IDEA 수상자인 학생 팀 ‘OPUS’는 모듈화된 책상 블록을 이용해 커스텀 가능한 책상과 이를 구성하는 모바일 앱의 융합 UX디자인을 구현했다. 학생 팀 ‘HAUB’는 스마트 홈 인터리어 공간과 UX가 이질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월패드 UX를 디자인해 심사위원단의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했다. 본교 디자인조형학부는 2014년부터 매년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김동우 기자 good@

안암병원-카카오브레인, 초거대 AI 개발 위한 협약 체결

본교 안암병원(원장=윤을식 교수)과 카카오브레인이 의료분야에서의 *초거대 AI 모델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공동연구를 통해 안암병원은 초거대 AI 모델을 적용한 의료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해 연구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암병원 은 초거대 AI 모델의 의료분야 적용을 통해 진단이 까다로운 난치병을 포함한 질병 판독 및 진단 업무를 돕는다. 특히 의료영상을 시작으로 의료 서비스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 분야 내 초거대 AI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초거대 AI : 슈퍼컴퓨팅 인프라로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한 차세대 AI로 기존의 AI에 비해 높은 수행능력을 지닌다.

김동우 기자 good@

바로잡습니다

1954호 제4면 ‘회계 비라·보복성 징계 의혹·열록진 세종동연’ 기사에서 ‘동연 회칙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되는 징계 규정은 없었고 정기 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2월 말 A씨가 “문화국 일이 많다”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됐다. 당시 이 씨는 A씨에게 “일이 많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였다”며 “일하는 스타일도 맞지 않아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처를 받았던 당사자는 이후 A씨에게 “이런 일로 해고될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부분을 ‘2월 말 A씨가 “문화국 일이 많다”고 말한 것이 이유였다. A씨에 따르면, 동연 회칙 중 A씨에게 적용되는 징계 규정이 없었다. 정기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로 바로잡습니다.

1954호 제9면 ‘ZOOZOO총회’ 코너 필자명을 ‘김윤정(공과대 건축 20)’에서 ‘최윤정(공과대 건축20)’으로 바로잡습니다.

1954호 제12면 ‘사회에서도 화면에서도 주변인 아닌 주인공’ 기사에서 ‘김세령(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김세령(호서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로 바로잡습니다.

“양양에서 서핑 대신 농활했어요”



도원규 씨가 아로니아 수확을 위해 나무를 자르고 있다.

농사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쉴 새 없이 아로니아를 수확했다. “아이, 학생들 이리 와서 한잔해!” 농민이 주스를 건넸다. 잠시 낮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진다. 오랜 휴식은 사치, 다시 일해야 한다.

본교 공과대 학생들은 농촌봉사활동(농활)을 위해 강원도 양양으로 떠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돌아온 농활에 16학년부터 새내기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선발대, 13일부터 16일까지 후발대가 활동했다.

아로니아 한 알에 땀방울 하나

지난 12일 선발대의 일정을 따라갔다. 양양군 강현면에 위치한 아로니아 농장은 간밤에 내린 비로 흙이 질퍽했다. “아이고, 허리아.” 밀짚모자에 토시, 빨간 조끼와 일바지까지 완전무장한 도원규(공과대 전기전자16) 씨는 톱으로 아로니아 나무를 베었다. 쓰러진 나무 곁에서 다른 학생들이 아로니아를 수확했다. 벌레합을 맞춘 지 3일째, 서늘했던 처음과 달리 손발이 잘 맞는다. 학생들이 흘린 땀만큼, 수확한 아로니아가 쌓였다.

“저희 인터뷰하면 여기서 쉴 수 있나요?” 더운 날씨에 지친 이가은(공과대 건축사회환경22) 씨와 백종훈(공과대 건축사회환경22) 씨가 농장 옆 컨테이너로 들어와 휴식을

취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대학에 오면 꼭 참여하고 싶은 로망 중 하나였 습니다.” 벌레를 피할 일바지와 새참 주스를 받으며 농촌의 따뜻한 정도 느꼈다. 더위를 피해 물려온 사람들로 어느새 어어컨 앞은 만석이 됐다. 먼저 쉬고 있던 이들은 새로운 이들에게 자리를 내줬다.

농장에서 돌아와 해안 정비에 나섰다. 낙산 해변은 연휴를 즐기러 온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붐볐다. 학생들은 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한 손에는 집게, 한 손에는 파란 봉지를 들었다. 겉보기에 깨끗한 바다였지만 봉지는 곧 쓰레기로 가득 찼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양양에서의 마지막 저녁이다. “잔 머리 위로!” 한 학생이 소리치자 모두 술잔을 들었다. 바비큐장은 솟 내새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학생들은 소감을 공유했다. 위동현(공과대 건축사회환경19) 씨는 “농활을 통해 공과대 학생과 가까워졌다”며 “농민과의 만남도 뜻깊은 경험”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잡초밭 이발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선발대를 보내고 아로니아 농장에서 후발대의 농활 시작을 기다렸다. 하지만 보슬비와 막히는 도로에 후발대는 제시간에 도착하기



선발대 학생들이 아로니아 농장일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사가 원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결국 김옥래(여·60) 씨는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분강이 활동 역시 흐린 날씨에 무산됐다. 학생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내일을 기약했다.

14일,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에 후발대의 첫 농활이 시작됐다. 졸린 눈을 비비며 숙소를 나섰다. 장승리 마을회관에 내리니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넓은 옥수수밭을 지나고 나타난 들깨밭이 오늘의 농활 장소다.

밭은 깃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학생들은 유키스의 ‘만만하니’와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를 부르며 잡초를 뽑았다. 제초제도 들지 않는 잡초는 만만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낮길에 학생들은 미쳐갔다. 묵묵히 일한 덕에 밭은 한도량씩 제모습을 보였다.

“들깃알이 꼭 이발하는 것 같네.” 김양희(여·61) 씨의 농담에 학생들이 웃었다. 각자 한 도량씩 맡아 잡초 빨리 뽑기 대결도 했다. 유난히 제초 속도가 빠른 도량은 할머니의 농사를 도운 경험에 있는 배명훈(공과대 건축21) 씨의 것이었다. “배 사장, 속도 빠르다?” 마치 농민이 된 듯한 말투와 표정은 일에 재미를 더했다.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농사를 즐겼다.

제초 작업을 반 정도 마쳤을 무렵

김양희 씨가 초코파이와 캔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학생들은 목을 축이며 김양희 씨 얘기를 들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양희 씨는 “농업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 학생들은 정말 기록하다”며 웃었다. 학생들도 웃음으로 화답했다.

음료를 마신 후 다시 밭으로 향했다. 이들을 바라보며 김양희 씨는 미소를 띠었다. “어이구 다들 땀 좀 봐. 농사가 참 힘들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없어.” 김양희 씨가 잡초를 이동하려는 기자를 불러 세웠다. “주소대, 데려다줄게!” 노란색 봉치가 기자를 태웠다. 장승리에서의 정을 간직한 채 현남면 밭으로 향했다.

양양의 남쪽 끝 현남면에서도 제초 작업이 한창이다. 남학생들이 키만 한 잡초를 베고 있었다. 학생들은 군대에 다시 온 것 같이라며 웃었다. 잠깐 부는 바람도 감사한 더운 날씨에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잡초를 베던 서윤재(공과대 화공생명19) 씨는 “힘들고 허리도 아프지만 잘 정리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웃었다. 6시간의 고된 농사일을 끝낸 뒤, 황우희(남·74) 씨가 학생들에게 외쳤다. “오늘 모두 와줘서 고맙네”

글 | 박지연·배연수 기자 press@ 사진 | 양수현 기자 posi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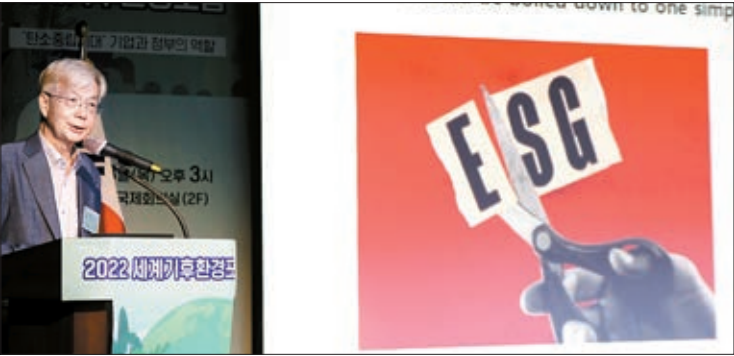
2022 세계기후환경포럼

“탄소중립 목표하는 자본시장 구축해야”

2022 세계기후환경포럼이 ‘탄소중립시대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1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본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원장=이우균 교수)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장은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으로 파악한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TCFD)’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TCFD권고안은 현존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과 다른 관점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해관계자가 중심이었지만, TCFD권고안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장 위원장은 “한국에서 TCFD권고안을 적용하는 기업 숫자가 적다”며 “금융기관과 기업,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조현수 녹색정책과장은 녹색금융 제도의 도입과 녹색분류체계를 소개했다. 그는 “녹색채권 발행을 돕고 위장환경주의를 방지하고자 녹색금융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린워싱이라고 불리는 위장환경주의는 기업이 이윤을 위해 제품, 서



장지인 위원장은 “한국도 TCFD권고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스 등을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로, 녹색경제 투자를 방해한다. 녹색금융은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등에 활용되는 금융 수단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제도의 일환으로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조 과장은 “‘녹색’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녹색분류체계의 경우 앞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후금융의 국내외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다룬 BNZ파트너스 권동혁 상무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연구를 소개했다. 탄소가격 상

승을 고려해 SK그룹, 포스코 등의 기업에서는 탄소 감축, 배터리 개발 등 새로운 그린 비즈니스 투자를 추진 중이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질서 있는 대응이 장기적으로는 GDP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권 상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반으로 녹색채권, 녹색 자금들이 기후 기술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연구원 김성진 글로벌협력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국가별 ‘Push&Pull(지원&제어)’ 환경정책을 소개했다. 최근 각국에 선 친환경 정책, 기술을 확대하는 지원 정책과 환경세 등 비용을 부과해

기업을 제재하는 제어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김 팀장은 “기후변화 아래에 무역 환경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협약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포스코 기업시민실 이정엽 ESG그룹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 ‘수소환원제철’ 등을 제시했다. 이 그룹장은 수소 확보 방법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수전해’와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운반 방법을 설명하며 “단기간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에 2030년까지는 효율을 최적화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성(생명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상위 11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가 한 해 동안 만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량보다 45배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모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지인 위원장은 “건강한 시장 작동을 위해 기업은 회계 정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글 | 김영은 기자 kimoo@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